

# 개도국 산업분석 리포트

【산업이슈분석 2010-14】

2010. 11. 18.

## 러시아 국영기업 매각 추진계획과 대응방안

### 목 차

I. 러시아 국영기업 매각 추진내용 .....	1
II. 최근 러시아 국영기업 매각현황 .....	6
III. 러시아 국영기업 매각계획에 대한 대응방안 ..	9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10월 향후 5년간에 걸친 900여 개 국영기업의 정부지분매각 계획을 발표했음. 금번 대규모 민영화 계획에는 에너지, 금융, 수송 분야의 주요 국영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분매각을 통한 재정적자 충당이라는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본고에서는 금번 국영기업 매각 추진내용과 최근 매각현황을 살펴보고, 국영기업 매각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 I. 러시아 국영기업 매각 추진내용

### 1. 분야별 추진계획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10월 향후 5년(2011~15년)간 900여 개 국영기업의 정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발표해 1990년대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단행한 민영화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의 국영기업 지분 매각이 추진될 예정임.
- 2010년 7월에 이어 10월에 발표한 매각대상 국영기업에는 스베르뱅크(Sberbank: 저축은행), VTB(Vneshtorgbank: 대외무역은행), 로젤크호즈뱅크(Rosselkhozbank: 농업은행) 등의 국영은행, 로스네프트(Rosneft: 석유회사), 루시드로(RusHydro: 발전회사), 소브콤플로트(Sovkomflot: 해운회사) 등 산업별 주요 핵심 국영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 국영기업 매각방식 및 절차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992~94년 민영화 시 적용된 일반매각 방식보다는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지분 일괄매각 방식이 더욱 유력함.
- 이고르 슈발로프(Igor Shuvalov) 제1부총리에 따르면, 연합곡물회사(United Grain Company)의 정부지분 100%와 소브콤플로트의 지분(50%-1주)이 2013년 까지 매각될 계획임.



<표 1> 주요 매각대상 국영기업 및 지분매각 예정 비율

매각대상기업	업종	정부지분	매각예정지분
Rosneft	석유	75.2%	24.2%
RusHydro	수력발전	60.4%	9.4%
Federal Grid Co.	에너지(변전)	79.1%	28.1%
Sovkomflot	해운	100%	50%
Russian Railways	철도	100%	25%
Sberbank	은행	60.3%	9.3%
Vneshtorgbank	은행	85.5%	24.5%
Rosselkhozbank	은행	100%	25%
Rosagroleasing	부동산	100%	50%
United Grain Company	농업	100%	100%

자료: 러시아 재무부

### □ 에너지 분야

- 러시아 정부는 로스네프트의 정부지분을 2012년부터 15% 매각한 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지배지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최대 수력발전공사인 루시드로의 정부지분 8%를 2013년 이전에 매각하고 2015년까지 정부지분을 25%<sup>1)</sup> 수준으로 줄일 예정임.
-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러시아 송전공사(Federal Grid Company)의 정부지분 4.11%도 주가가 주당 50코펙(kopeck)<sup>2)</sup>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 □ 금융 분야

-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의 정부지분은 현재 60.3%에서 2014년까지 50%로 축소될 계획임.

1) 25%-1주

2) 1코펙은 100분의 1루블임.



- 게르만 그레프(German Gref) 스베르뱅크 CEO는 은행 지분의 3~4%를 공개된 시장에서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향후 5년간 스베르뱅크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임.
- VTB의 경우 빠르면 연내 정부지분 85.5% 중 10.4%를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할 예정이며, 2011년 10%, 그 후 10~15%를 추가 매각할 계획임.<sup>3)</sup> 특히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러시아 정부는 VTB에 대한 지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냄.
- 농업은행인 로젤호즈뱅크(자산규모 4위)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부지분 25% 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 □ 수송 분야

- 정부지분 100%인 러시아 철도청(Russian Railways)의 정부지분 25% 매각은 2013~2015년에 추진될 예정이며, 국영해운사인 소브콤폴로트의 지분은 2012년에 25%, 2013년에 25%<sup>4)</sup>가 매각될 계획임.<sup>5)</sup>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Aeroflot)의 지분 51.2%도 지배지분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 기 타

- 그 외 국영통신사인 스비야진베스트(Svyazinvest) 구조조정 후 자회사인 로스텔레콤(Rostelecom)의 정부 지분을 정리하는 것을 검토 중임.
- 한편, 국영 송유관 관리회사인 트란스네프트(Transneft, 정부지분 78.1%)는 향후 5년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국영 석유회사 자루베즈네프트(Zarubezneft)도 10월 매각 대상 발표시 제외되었음.

3) VTB 정부지분 중 10.4%는 미국계펀드인 TPG 캐피탈 (TPG Capital, 과거 Texas Pacific Group, 자산규모 470억 달러) 앞 매각 예정이며 현재 정부 고위층의 재가 후 법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매각금액 약 24억~31억 달러 추정)

4) 25%-1주

5) 러시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러시아 철도청과 아에로플로트의 정부지분 매각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2. 추진배경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지속

- 러시아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 정부의 에너지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석유수출세 인하 조치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2009년 GDP 대비 5.9%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2010년에도 GDP 대비 5.4% 수준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 2010년 세입 6조 9,500억 루블, 세출 9조 8,869억 루블 규모, GDP 대비 6.8% 수준의 적자예산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고유가에 따른 세입 증가로 재정적자 목표 수준을 GDP 대비 5.4%로 수정했음.
- 러시아의 재정적자 규모는 2010년 610억 달러, 2011년 400억 달러, 2012년 150억 달러로 전망되며, 정부는 2015년까지 예산적자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표 2> 2011~13년 러시아 예산(안) 및 전망

단위: 억 루블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입	원안	73,37.8	6,950.0	8,617.0	9,132.0	9,984.0
	수정안	-	7,783.8	8,844.0	9,503.0	10,379.0
세출	원안	96,60.1	9,886.9	10,358.0	10,845.0	11,749.0
	수정안	-	10,212.4	10,658.0	11,237.0	12,175.0
재정수지	원안	-23,22.3	-2,936.9	-1,714.0	-1,713.0	-1,765.0
	수정안	-	-2,428.6	-1,814.0	-1,734.0	-1,796.0
GDP 대비 목표(%)		-5.9	-5.4	-3.6	-3.1	-2.9

자료: EIU.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8월에 발표했던 2011~13년 예산안을 10월에 수정해 국방관련 비용 증대, 보건·교육 등 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반영함. 원안 대비 세출 증가 규모는 2011년 3,000억 루블, 2012~13년에는 각각 3,920억 루블 및 4,260억 루블 수준으로 전망됨.



- 특히, 2011~13년 중 총선 및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복지 비용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과 세출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 대내차입 및 국영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재정적자 충당

-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차입 및 국영기업 지분 매각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을 밝힘. 그동안 예산적자 보전을 위해 활용하던 적립기금으로부터의 예산 전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함.<sup>6)</sup>
- 2009년 재정적자를 적립기금에서 충당<sup>7)</sup>한 데 이어, 2010년 중 이미 적립기금에서 5,190억 루블을 전용해 적자규모를 축소했으며 연중 9,000억 루블을 추가적으로 충당할 예정임.

### 석유안정화기금 (Stabilization Fund)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락에 따른 경제충격에 대비코자 2002년부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세 수입과 연방예산 잉여금으로 석유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2008년 2월부터 석유안정화기금을 적립기금(Reserve Fund)과 국부기금(National Welfare Fund)으로 분리, 적립기금은 대외채무 상환과 재정 부족에 충당하고 국부기금은 정부 개혁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1일 현재 적립기금과 국부기금은 각각 1조 2,583억 루블 및 2조 7,222억 루블 수준임.

- 차입의 경우 러시아의 총외채잔액 규모는 2008년 이후 4,000억~4,5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차입 의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대내차입을 보다 증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세르게이 스토르차크(Sergei Storchak) 재무부 차관은 2011년 1.5조 루블, 2012년 1.3조 루블, 2013년 9,310억 루블 규모를 차입할 예정이며, 이 중 해외차입은 10% 미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6)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0년 10월 2014년까지 원유·천연가스 관련 세입을 통한 재정적자 충당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예산법(Budget Code) 개정안에 서명함.  
7) 적립기금 규모는 2009년 초 4조 루블에 달했으나 재정적자 충당으로 2009년 말 1조 8,233억 루블 수준으로 급감했음.



- 900여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으로 러시아 정부는 2015년까지 총 580억 달러를 마련할 전망이며, 2011년부터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이 자금의 일부가 연방정부 예산으로 활용되고, 일부는 기업환경 발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0년간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관여가 확대되어 왔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최근 대규모 공기업 지분매각 방침 전환은 시급한 예산적자 보전이라는 정책적 우선목표가 고려된 것으로 보임.

## Ⅱ. 최근 러시아 국영기업 매각 현황

### 1.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 FDI 유입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발전산업이 일부 민영화되며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임.
-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FDI 유입액은 2003년 80억 달러, 2004~05년에는 평균 1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297억 달러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 2007년에도 55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86%나 증가했음.

**<표 3>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1~6
은행 부문	2,510	7,221	10,075	6,441	1,700
비은행 부문	27,191	47,853	64,927	30,310	17,433
합 계	29,701	55,074	75,002	36,751	19,133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특히, 2008년에는 발전산업의 부분적 개방, 천연자원, 자동차, 부동산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성사 등으로 FDI 유입규모가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에 달함. UNCTAD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러시아의 FDI 유입누계액은 2,140억 달러로, GDP의 12% 수준임.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 유입실적 다시 증가

-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국제금융시장의 경색과 이로 인한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2009년 FDI 유입액은 368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함.
- 2010년 1~6월 중 러시아 FDI 유입액은 191억 달러를 기록해 FDI 유입실적이 다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외국인투자제한법으로 인한 민영화 효과 제한 우려

- 2008년 제정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법<sup>8)</sup>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 경영관리 능력 향상, 기술혁신 등의 성과가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투자제한법은 1999년 외국인투자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분 소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지분 이상 취득시 정부 승인이 필요함.
  - 전략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회사 지분을 이미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은 소유지분을 러시아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이 법이 통과된 시점 이후 5% 이상 국가전략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러시아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함.<sup>9)</sup>

8) “국가 방어와 국가안보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 절차법”(연방법 57-FZ)은 2008년 4월 29일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7일 발효됨.

9) 주요 대상은 특수기술, 무기, 항공, 우주, 원자력, 천연자원 등 6개 산업부문의 42개 전략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지분을 50%(외국 국영기업이 투자할 경우 25%) 이내로 제한함. 특히 광물자원의 경우 외국인 민간투자자의 경우 10%, 외국 국영투자자의 경우 5% 이내로 지분 소유가 제한됨.





## 2. 2000년대 이후 국영기업 매각 현황

### □ 최근 국영기업 지분매각 성과는 부진

- 러시아 정부는 최근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기업은 배제되는 등 계획 대비 성과는 부진한 편임.
- 2005년에는 정부지분 매각수입으로 350억 루블이 유입되어 민영화 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했으나, 2006~08년은 각각 목표 대비 50%, 45% 및 65% 달성하는데 그침.

<표 4> 국영기업 지분 매각에 따른 예산수입

단위: 억 루블

연도	금액	연도	금액
1992	1.6	2001	98.0
1993	0.7	2002	132.0
1994	1.2	2003	900.9
1995	47.7	2004	657.7
1996	8.3	2005	348.2
1997	187.8	2006	182.6
1998	153.0	2007	192.6
1999	85.1	2008	65.7
2000	313.9	2009	19.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

### □ 러시아 기업 주요 매각 사례

- 200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자에 러시아 기업을 매각한 주요 사례로는 2003년 알파, 엑세스/레노바 그룹(Alfa, Access/Renova Group)이 영국 BP에 지분을 매각해 TNK-BP를 설립했고, 2007년 유코스(Yukos) 공매단이 유코스의 원유·가스관련 자산 일부와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 지분 20%를 이탈리아의 에니(ENI)와 에넬(ENEL)에 매각한 바 있음.



<표 5> 주요 외국인 투자자 앞 러시아 기업 매각 사례

거래연월	매각자산	매각금액 (백만달러)	매도인	매수인
2003. 6.	TNK-BP 50%	6,150	알파, 엑세스/ 레노바 그룹	BP(영)
2007. 4.	가즈프롬네프트 20% 및 유코스 일부 자산	5,830	유코스 공매관리단	ENEL, Eni(이)
2007. 9.	OGK-4 <sup>주1)</sup> 60.4%	4,000	정부	E.On(독)
'06. 6. ~ '08. 2.	Rosbank 50%	2,330	Interros Group	Societe Generale(프)
2004. 9.	LUKoil 7.59%	1,988	정부	ConocoPhillips(미)
2007. 6.	OGK-5 <sup>주1)</sup> 59.8%	1,500	정부	ENEL(이)
2008. 3.	Lebedyansky 75.33%	1,357	Bortsov	Pepsi(미)
2008. 2.	Avtovaz 25%	1,166	Troika Dialog <sup>주2)</sup>	Renault(프)

주: 1. Fourth (Fifth) Generation Company of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러시아 발전회사

2. 러시아·CIS 지역 최대 투자은행

자료: Kommersant, 2010. 9. 14.

### Ⅲ. 러시아 국영기업 매각계획에 대한 대응방안

#### □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 미흡

-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실질적인 협력 성과는 미흡한 상태임.
- 1992~2009년 한-러 교역규모는 약 52배 증가해 BRICs 국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음.
- ※ 1992~2009년 브라질, 인도 및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각각 9배, 13배, 22배 증가<sup>10)</sup>
-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러시아 FDI 유입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누계 기준 0.2% 수준으로 투자협력 규모가 교역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10) 한국수출입은행, “한-러시아 수교 20주년 그 경제적 성과”, 2010. 9.



<표 6> 1992~2009년 한-러 교역 및 투자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교역			투자	
	1992	2009		1992	2009
수출	118	4,194	한→러	3	1,403
수입	75	5,789	러→한	1.5	40

### □ 경제현대화 정책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

-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은 정부의 경제부문 관여를 축소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현대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임.
- 러시아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 중임.
  - 2009년 6월 경제현대화 5대 핵심전략 산업으로 에너지, 원자력, 의료기술, 우주·통신, IT를 선정하고, 핵심전략 산업의 중점 육성과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과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대통령 산하 국가현대화·기술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실 산하 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함. 2009~10년 약 47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금번 대규모 국영기업 지분 매각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일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체질 개선 및 기술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러시아 전반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푸틴 총리가 42개 글로벌 기업 및 국제 투자은행이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FIAC)<sup>11)</sup> 회의석상에서 이번 매각계획을 언급하는 등 러시아 정부는 강력한 외국인 투자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1990년대 대규모 민영화 과정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이 헐값에 국유재산을 취득해 신흥재벌(oligarch)로 등극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금번 국영기업 매각 과정에서는 국제 투자은행과 자본과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참여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경제현대화 정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다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VEB) 산하 수출신용보험기구 설립</li> <li>- 국가기술 표준 구축 등 기술규제 시스템 정비</li> </ul> </li> <li>•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보험기관 등 7개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회계감사 강화</li> <li>- 조세제도 개혁 및 금융시스템 현대화 추진</li> </ul> </li> <li>• 경제혁신 촉진 및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혁신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위원회 설치</li> <li>- 교육, 문화 및 보건 부문의 질적 수준 제고</li> </ul> </li> <li>• 인적자원 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저명한 과학자의 적극 유치</li> </ul> </li> <li>•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자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기금 조성(외국인 투자 유치 등)</li> <li>- 기초·응용과학 및 첨단 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li> </ul> </li> </ul>

## □ 러시아 경제현대화 추진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필요

-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외에도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sup>12)</sup>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력 분야 발굴 및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11) FIAC은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코카콜라, 펄스, 네슬레, 포드 등 4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FIAC 소속 기업의 러시아 내 총 투자액은 약 1,000억 달러에 달함.  
 12) 이 외 10월 러시아 경제현대화에 대한 한-러 공동세미나, 11월 제3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이 개최되어 민간 차원의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 양국은 2010년 11월 G20 개최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경제현대화 분야 협력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민간 차원에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협력관련 MOU를 체결해 유망분야의 협력 강화의 전기를 마련했음.<sup>13)</sup>
-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영기업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강력한 외국인투자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확대 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가 지분매각 대상 기업과 지분매각 규모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므로 우리기업들은 러시아의 국영기업 매각 등의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허정옥  
 3779-6653, johuh@koreaexim.go.kr

13) 2010년 11월 한-러 경제협력 관련 정부 및 기업간 체결된 주요 양해각서는 다음과 같음.

명 칭	체결주체
러시아 경제현대화 협력 MOU	(한)지식경제부, (러)경제개발부
산업협력 MOU	(한)지식경제부, (러)산업통상부
“한-러 에너지효율협신센터”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	(한)에너지관리공단·광산업진흥회 (러)에너지청
전력망현대화 협력 MOU	(한)현대중공업, (러)FGC(송전공사)
스마트그리드 및 배전망 현대화 협력 MOU	(한)한전·LG상사 (러)Holding IDGCs(배전공사)
러시아 전력망현대화사업 금융지원 협력 MOU	(한)한국무역보험공사 (러)Holding IDGCs(배전공사)
발전분야 협력 MOU	(한)LG상사, (러)ASE Engineering
Skolkovo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협력 MOU	(한) LG하우시스, (러) 슈마캐피털
극동·시베리아지역 상호 협력 MOU	(한)포스코, (러)메첼社

자료: 언론매체 종합.